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27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27
2021.06.27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412017330>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6.27

1. [차별이잘못된줄몰라서할리가...]

2021년, 역병과더불어세상에차별이점점만연하고있다. BLM 운동이후대중의차별에대한인식과이에대한저항은점점발전하는듯하면서도이에못지않게전세계에서, 특히한반도에서도차별의합리화와노골화도심해지고있다. 혹은기존에존재하던차별이공론화된것이라할수도있겠지만그렇다고단언하기에는최근개인매체및커뮤니티에서차별을정당화하고, 심지어차별을못해서아쉬워하는(?) 현상까지발견되고있다. 이렇게차별옹호적인사회현상을막기위해현재한국국회는물론많은국가의의회에서차별금지법을도입했거나도입하기시작했다. 그러나과연이것이해결책이될수있을까?

우리 < 아나키스트연대 > 는차별에저항하기위한소수자들의자주적인저항과투쟁을지지하며이들과연대하고자한다. 때문에이런소수자들이당장의해결책으로서차별금지법도입을주장하면우리는이해결책에의문을 품더라도함부로반대를할수는없다. 그러나그렇다고우리는이해결책, 차별금지법에명확한한계가있기에이에대해서는비판할수밖에없다. 차별금지법의세부적인조항도따지고들면지적할만한문제점이있을것같지만그렇다고그걸개정한다고나아질것이라생각하지도않기에차별금지법자체의한계에대해살펴보겠다.

일단차별이왜일어나는지부터알아보자. 보통차별이상대방에대해이해를못할때발생한다고하지만이는부차적인요소일뿐이다. 상대방에대한몰이해는차별이라는폭탄에있어서심지부분에불과하며, 직접적으로터지게되는화약부분은따로있다. 그것은바로이해관계, 그리고물질적토대의불안정성이다. 먼저이해관계에대해야기하자면, 차별도상당량은실제로물질적손익을두고발생하는경우가 많다. 대표적인예로사용자들의외국인노동자에대한차별, 개인매체들의차별을조장하면서인기를얻는사례가있다. 이런차별을조장하는이해관계는자본주의및국가체제가직접적으로조장하는경우가 많으며이는관련사업을배틀리는대신수많은소수자들을불행에빠뜨린다.

그러나차별중에는단순히이런물질적인이해관계를기반으로만있는것은아니다. 오히려언론및개인매체들의이해관계적기반이되는대중의소수에대한차별은물질적인손익과거의무관하다. 그러면왜차별이발생하는것인가? 바로물질적토대가불안정해졌기때문이다. 한번쯤임금체불, 실직위기, 갑작스런해고등을겪어본사람이라면누구나알겠지만갑자기자신의임금등의물질적토대가흔들리면극심한스트레스를겪게된다. 그리고그럴때자신이얼마나지식이풍부하고똑똑하든간에자신의비극의원인을자신이나체제보다는체제가합리화하는대로다른곳에서찾고싶어한다. 그렇게대중은소수에대해차별을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차별은이렇게발생하기에이를차별금지법등의제도를통해규제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 차별금지법은정상적으로작동한다하더라도이해관계면에서범법자에게제제를가하거나소수의경우구속하는방식이기에이해관계를기반으로하는차별, 예를들어개인매체나언론의차별조장적보도정도는제한할수있

어도물질적토대의불안에의한차별은막기힘들다. 아니, 오히려불안에내몰린대중을더더욱압박하기에그들은‘표현의자유’등을내세우면서차별정당화에더더욱힘을쓸것이다. 이렇게더더욱열내는대중을본기존의이해관계적차별자들은이열기를사업삼아법의제제를감안하고도차별을더욱은밀하게조장하면서수익을내려할것이다.

그러면우리는어떻게저항해야할것인가? 운이좋게물질적기반에불안을안느끼거나이를극복한우리는이런대중에게‘과연우리가느끼는불안의원인이차별하고자하는대상인가?’라는질문을꾸준히던져줘야한다. 그리고그들이체제의차별에대한합리화를논치챌것같으면그들을도와차별의거짓에대해깨닫도록도와줘야한다. 대중은흔히어리석다고들볼세비키, 의회주의자, 계몽주의자들은말하지만그들은절대그렇지않으며약간이라도합리화에대해의문을품기시작하면저절로거짓에대해깨달을수있다.

나머지이해관계적으로형성된차별주의자들은어찌하는가? 이해관계에충실한자들은이해관계에맞춰서대응하면된다. 그들의차별과선동을폭로하고이들의부정에맞서불매운동등으로조직적투쟁을실시하면된다. 그러면그들은저절로살아남기위해그러한차별적인행동을멈추거나역으로물질적으로유지하지못하면서붕괴될것이다. 결국차별에대해맞설때도필요한것은대중의조직화된투쟁이다. 우리대중은성별이어떻든, 인종이어떻든, 신체상황이어떻든간에서로협력하며살아가는존재이다. 우리중하나의상처는우리모두의상처이니, 인민대중이며, 단결하여나아가자!

” 외국인이라, 사투리쓴다고…” 정당한차별이란없다” 피해자들호소” :
<https://youtu.be/5P4XD8EIQUU>

2. [중국공산당망해라]

비단아래기사에나오는홍콩에서의일만가지고하는이야기는아니다. 중국공산당이중국내당시아나키스트들의뒤통수를후려갈기고출범한이래 100 년이라는시간이흐르는동안그들이쌓아온죄악을헤아릴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 아주가까운시일의사례로는홍콩의언론들을강제로폐간시킨것부터시작해홍콩인민들의자유를억압하는악법을만든것, 노동자들이자신의목소리를내고자만든민주노조를탄압하고박살내고활동가들을잡아다가두고두들겨패서내다버린것, 조금멀리가보자면국제행사를위해자국민민들의삶의터전을국가의이름으로부수고철거한것, 공산당이라는이름을걸고제국주의적인경제식민지정책을끊임없이기획하는것등, 이루어져하기가불가능할정도다. 천안문사태는굳이적지않아도스스로부끄러움을아는것인지황금방패전사님들이열과성을다해자국내에서접근하기어렵게하고있으니굳이덧붙이지않아도 좋을것이다.

여기에비판적인목소리를낼일군의독자들에게도분명히물고싶다. 중국공산당이여러분마음속의그공산당이맞기는한가? 자국의이익만을쫓아민족주의적광기를전세계에내뿜으며칼춤추는모습이정말노동자대중을위한’ 공산당’ 의

모습이맞는가? 물론우리강철의대원수스탈린도그랬으며특수한상황이어찌고 자본주의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노동자국가를수호운하는대답들이돌아올것을너무나도잘알지만, 그러면굳이더첨언할것은없을것같다. 다만쓴웃음이지워지지않는착잡함만이남을뿐이다.

이제는차라리중국이사회주의연하는것을그만멈추고솔직하기라도했으면 어떨까싶다. 자본주의는자본주의대로받아들이고, 민족주의는민족주의대로광풍을일으키고, 제국주의는제국주의대로밀어붙이는것이어디를보셔사회주의 라는말인가. 차라리사회주의간판을떼고스스로에게솔직하기라도하면안먹어도 될욕은적어도피할수있지않겠는가.

인간사백년이면겉허히죽음을받아들일때도된것이다. 백년동안중국공산당이 무얼얼마나이루었고노동자대중을위해노력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 뭐, 했다고치고, 이제그만역사의위안길로사라져주셨으면하는간절한바람이다. 그뒤는 중국각지의여러대중들, 티베트의여러대중들, 위구르의여러대중들, 홍콩의여러대중들, 대만의여러대중들이알아서스스로의삶을잘꾸려나갈것이다. 아무리중국공산당이파쇼적인행태로대중들의투쟁을짓밟아도끝내다시일어서는것과 마찬가지로말이다. 이제그만망해라.

” 홍콩의‘분서갱유’ ”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1034.html>

” 시진핑, 공산당창당 100 주년앞두고’ 새로운업적’ 주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7028300083?](https://www.yna.co.kr/view/AKR20210627028300083?input=1195m) in-put=1195m

3. [그들의민낯]

지난 18 일, 함안의제조업체에서채용된직원에게대해‘충성서약’을강요하고 있던관행이금속노조경남지부에게해방혀졌다. 내용은지시에대한무조건적복종, 전근·전입·출입·기타에관한사측명령에대한순종과수습기간중사퇴권고시 즉각사퇴, 자신이나회사의타직원의연봉및시급에대한정보누설금지등가히전 근대적인수준이다.

오늘날한국자본주의가밖으로는몇몇대자본이무노조경영구호를내리는등 자신의겉모습을좀더세련되게포장해보이려하지만안으로는여전히이러야만적 관행을가지고있는것이일반적인현실이다. 주류기득권언론의관심과시선에서 벗어난지방, 비정규직, 계약직노동자들은여전히자신의최소한의권리도보장 받지못한채착취당하고있고그나마이미지를챙긴다는기업들조차노조파괴와 UHP 를위시한최대한의육체착취를일삼는다. 노동자들은이러한국자본주의의 민낯을직시하고상생을운하는정부와우파의선전선동이얼마나가식적인가를 직시해야한다.

21 일자로해당업체의대표는이복종서약서에대해사과하며근절하겠다고말 한상태다. 정말착취적관행을폐지할수있을지없을지는앞으로도직접투쟁하는 노동자의손에달려있다.

” 함안제조업체, 노동자에‘복종서약’논란”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3821>

4. [아, 이게좌우넙나들기였구나...]

우리준석이형이국민의힘당대표가된이래로봉하마을을찾아황교안을만났 고, 이승만과대립한백범김구묘소도참배했답시고좌우를넙나들기했다는말들 이나오고있다. 20 대청년을대변하는공정한사회를만들어줄당대표, 준석이형! 정말대단하지않은가?

일단가장먼저, 김구와노무현묘지를찾았답시고’ 좌’ 에도손을내밀었다고 판단하는언론들의판단이참여경기그지없고, 동시에’ 중간지대넓히기’ 라는이 름조차도너무역겹다. 이준석이이야기하는소위’ 공정’ 진짜공정이맞는지조차 도신뢰성이드는데, 이준석을떠워주고자하는수많은시도들이많이보이는것 또한너무나도역겹다.

좌우를넙나들며중간지대를넓힌다고? 틀렸다. 이준석은자신이안티페미니 즘과 20 대남성청년을대변한다는것을넘어, ’ 평범한’ 대한민국의정치인이되 고싶다는것을행동으로써보여주고있을뿐이다. 그이상이하도아니다.

이준석신드롬에, 그리고연례행사와같은좌우통합코스프레에더이상속지말 자. 그어떤사람보다도 18~19 세기영국을간곡히원하고있는이준석을그냥저면 발치에치워두자.

그리고우리가일하고있는곳에, 우리가살아가고있는곳에집중해보자. 그리 고불만이있거나무언가더나아지게만들기위해, 내옆에있는친구와함께같이싸 워보자. 이준석에게기대는것보다, 그것이진짜로내삶을바꾸는힘이될것이다.

” 이준석, 좌우넙나들며‘중간지대넓히기’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